

문진형(文震亨)의 장물지(長物志)와 서유구(徐有槩)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가 조선 후기 사대부 정원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Jangmulji compiled by Mun, jin-hyung & Imwonkyungjaeji compiled by Seo, yu-gu on the Garden of Gentry in Late Joseon

천 요 화*, 신 현 실*, 이 원 호**, 김 동 현**, 김 재 응**,
조 운 연**

북경대학교 도시 및 환경과학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CHEN yao-hua*, Shin hyun-sil*, Lee won-ho**,
Kim dong-hyun**, Kim Jae-Ung**, Cho, Un-Yeon**
College of Urban and Environmental Sciences,
Peking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정원 관련 저술서인 장물지와 임원경제지를 통해 한·중의 정원문화 특성을 도출하고 그 관계성을 고찰한 결과, 장물지와 임원경제지는 방대한 양의 자료수집을 통한 정원문화 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입지, 건조물, 수목식재, 수경요소, 동물의 사육 등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다수 나타나는 점은 각각의 정원문화에 있어 영향관계가 성립했을 것으로 보인다.

I. 서론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정원문화는 중국의 원림문화 취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중국의 문화적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정원은 대부분 사라져 그 원형이 물리적으로 전해지는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원림문화가 반영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당시의 정원문화를 집대성한 한·중 정원관련 유서(類書)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원림문화의 특징과 이에 따른 한국정원문화와의 관계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사대부 정원에서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한·중 정원관련 저술서에 나타나는 문화사적 가치 및 양국의 정원문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대상으로 장물지(長物志)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중국에서 발행된 장물지 영인본을 대상으로 완벽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1], 임원경제지는 2005년 일본 오사카 시립 나카노시마 도서관 소장 임원십육지를 국역본과 '산수간에 집을 짓고'를 참고하였다[2].

III. 결과 및 고찰

1. 장물지와 임원경제지의 문화사적 가치

1.1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

장물지의 저자 문진형(文震亨, 1585-1645)은 명말 문인화가로서 대대로회화와 원림에 조예가 깊었다. 청대 저술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 의하면 '장물지는 멀리는 趙希鵠의 『洞天清錄』에 연원을 두고 가까이에는 屠隆의 『考槃餘事』를 참조하였다[3].' 고 밝히고 있어 장물지의 저술을 위해 송(宋)대에서 명말(明末)에 이르는 시기의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원경제지는 조선 초기 『농사직설』부터 조선 후기 『규합총서』에 이르는 총 11권의 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저자인 서유구(徐有槩, 1764-1845)는 삼대에 걸친 실학 가문으로 저술활동 및 장서수집이 활발했던 가학(家學)을 계승하고 조선후기 사대부와의 교류를 통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4].

1.2 정원문화의 집대성

장물지는 총 12권 269개의 조목이 수록된 명말 사대부의 생활과 문화에 지침서라 할 수 있으며 원림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실려(室廬), 화목(花木), 수석(水石), 금어(禽魚), 소과(蔬果)편으로 구분하여 원림 내 각 공간의 세부 구성요소까지 밝히고 있고, 조성 및 완상 방법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이는 장물지에 수록된 내용이 당시 중국 원림 문화의 보편적 양상이라는 관점에서 높은 경지의 문화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원경제지 또한 이운지(怡雲志), 상택지(相宅志)편을 통해 백과사전 형식의 당시 정원 문화를 기술하였는데, 조선 후기 정원의 세부 조영기법, 각 조경요소의 조영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표 4. 장물지와 임원경제지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장물지	실려(室廬)	건조물 조성기법 및 공간의장
	화목(花木)	원림 내 수목의 종류 및 식재
	수석(水石)	수경요소 및 석조물
	금어(禽魚)	원림 내 조류 및 어류의 사육
	소과(蔬果)	야채·과일의 실용적 활용
임원경제지	이운지(怡雲志)	주거공간의 배치 및 장식
	상택지(相宅志)	터잡기와 집짓기

2. 장물지가 조선 후기 사대부 정원에 미친 영향

2.1 정원의 입지

장물지의 실려(室廬)편을 살펴보면 ‘산수에 거하는 것을 으뜸으로 하고 산촌에 거하는 것을 다음으로 하며 교외에 거하는 것 또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원림의 입지선정에 있어 산수에 거하는 것을 이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편 임원경제지의 상택지(相宅志)편에는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성정을 활달하게 만든다.’라고 하여 명산과 아름다운 천(川)이 있는 땅을 원림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2.2 건조물

사대부 사이에서는 원림문화 향유에 따른 건축물의 다양화가 나타났는데, 실려(室廬)에서 명시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각각의 기능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정원과 누각 등이 조성되는 위치를 지목하고 있다. 한편 임원경제지 이운지편에도 원림향유의 문화가 유행함에 따라 정원공간을 서재, 온각, 다료, 약실, 금실, 장서각 등의 내부공간과 다수의 정자, 누각으로 특장지어지는 외부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에서의 조성기법뿐만 아니라 원림향유방법까지 서술하고 있다.

2.3 수목식재

화목편에서는 원림 내 이용되는 40여종의 수종과 각각의 생육조건, 식재기법, 상징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형 및 자태, 생장특성에 따라 식재위치를 달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수목에 대해서는 금기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원림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운지편에서도 나타

나는데, 정원 내 각 지점에 식재할 수목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상(四象)을 대신하는 등 풍수적 개념을 추가하였다.

2.4 수경요소

수석편에서는 원림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수경요소를 분류하고 각 요소별 특징과 함께 식재, 배석 등의 조성기법을 제시함에 따라 각 요소의 조합에 따른 공간연출기법 등 원림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임원경제지는 연못과 인공섬, 돈대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하였는데, 특히 연못은 조성기법, 치수, 공간의장, 관리방법, 금기사항 등을 이운지와 상택지편 모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는 수목 식재, 정원석 배치와 함께 시공법의 사례제시를 통한 공간의장의 규범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기타

정원을 구성하는 주요요소는 건물, 화목, 수경요소와 석조물 등 다소 정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동물을 사육하는 활동을 통해 정원 내 활동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장물지의 금어(禽魚)편에는 원림 내 진귀한 동물을 키움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관을 제안한 바 있으며 임원경제지 이운지편에는 학(鶴) 우리를 만들어 학 몇 마리를 기르는 산가청사(山家淸事)의 내용, 연못에 물고기를 기르는 방법을 기술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의 조항을 인용하여 원림 내에 동물을 사육함으로써 동적 경관을 부여하였다.

IV. 결론

본 논문은 정원 관련 저술서인 장물지와 임원경제지를 통해 한·중의 원림문화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물지와 임원경제지는 수대에 걸친 사료의 집적을 통해 저술된 정원저술서로 당시의 일반화된 정원문화를 집대성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둘째, 장물지에서 나타나는 정원문화특성은 임원경제지라는 조선 후기 사대부에 의해 저작된 정원저술서를 통해 당시의 정원문화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은 중국의 정원문화가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확인된다.

■ 참고 문헌 ■

- [1] 文震亨, 長物志 影印本, 線裝書社, 中國, 2012
- [2] 안대회,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파주, 2005.
- [3] 김지선, “장물지에 나타난 명말 사대부의 내면세계”, 중국학논총, 제42권, pp.133-156, 2013
- [4] 김규섭, 조선시대 서유구의 자연관 및 정원조영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